



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편 | 양장판 | 320쪽 | 15,000원

영화 <암살>과 <밀정> 속에도
태극기와 청진기를 품고
목숨 걸고 조국을 지키는
의사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

열사가 된 의사들

의사독립운동사

청진기와 태극기를 품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일제에 항거하며 상하이와 내몽고, 멀리 울란바토르까지 대륙을 누빈 의사(醫師)들의 대서사시. 영화 <암살>과 <밀정>속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고문과 투옥,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의사들의 스토리를 최초로 담은 책. 이태준, 김필순, 박서양을 비롯해 김산과 이미륵 등 의사로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책에 오롯이 담겨있다.



경향 **경향신문**
www.kyunghyang.com

서울·중구 정동길 3(정동, 7층) tel 02-3701-1325